



삼성화재는 고준용(가운데) 감독대행이 처음 지휘했던 23일 한국전력과의 친선에 2025~26 V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했다.



17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기.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실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 “오늘은 연패 탈출”… 두 손 모은 기원

11연패 삼성화재·8연패 페퍼  
“악몽같은 수렁 탈출” 동반 출격

삼성, 올 전패 OK저축과 일전  
성적 부진으로 감독 사퇴 공식  
상대 삼각편대 공세 저지 관건

페퍼, 올 시즌 최강 도공과 한판  
20%대 리시브 효율 최대 약점  
또 패배하면 꼴찌 추락할 수도

11연패 부진에 빠진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8연패 수렁에서 허덕이는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26일 나란히 연패 탈출 도전에 나선다.

삼성화재는 26일 오후 7시 대전 총무체육관으로 OK저축은행을 불러들여 안방 대결을 벌이고, 페퍼저축은행은 같은 시간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원정 대결을 펼친다.

두 팀 모두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기 위해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김상우 전 감독이 창단 후 첫 10연패를 당한 후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해 고준용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팀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용 감독대행이 처음 지휘했던 23일 한국전력과 경기에선 풀세트 대결 끝에 2-3으로 역전패해 11연패를 막지 못했다.

삼성화재는 당시 한국전력전에서 외국인 주포 미힐 아히(등록명 아히)가 27점, 토탈 공격수 김우진이 20점을 사냥하며 47점을 합작했지만, 35점을 폭발한 상대 외국인 거포 쉐론 베논 애번스(등록명 베논)를 막지 못했다.

삼성화재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 OK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최하위 수모를 딛고 올 시즌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만만찮은 상대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OK저축은행이 2전 전승을 올렸다.

OK저축은행은 10월21일 1라운드 3-2 승리에 이어 지난 달 27일 2라운드 3-0 원승으로 삼성화재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2라운드 대결 때는 OK저축은행의 외국인 주포 디미타르 디미트로프(등록명 디미트로프-15점)와 차지한(17점), 전광인(13점)이 45점을 합작하며 3-0 승리를 이끌었다.

삼성화재로선 OK의 삼각편대인 디미트로프-차지한-전광인으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를 어떻게 막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새 사령탑 후보를 물색 중인 삼성화재는 11연패 탈출이 최우선 과제다.

여자부 페퍼저축은행도 같은 날 선두를 달리는 도로공사와 상대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달 21일 정관장전을 시작으로 8경기를 내리 패했고, 시즌 6승 10패(승점 17)를 기록하며 최하위 정관장(승점 14)에 바짝 짓기고 있다.

외국인 주포 조이 웨더링턴(등록명 조이)이 경기당 30점 안팎을 꾸준하게 올리지만, 리시브 효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진 게 최대 약점이다.

특히 베테랑 공격수 박정아가 지난 20일 흥국생명전 1-3 패배 때도 교체 출전하며 4득점에 그치는 등 제 뒷을 못 해주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상대팀 도로공사는 레티치아 모마바소코(등록명 모마)와 타나차 쑤츠(등록명 타나차), 강소희로 이어지는 최강 삼각편대를 앞세워 파죽의 10연승을 달렸던 강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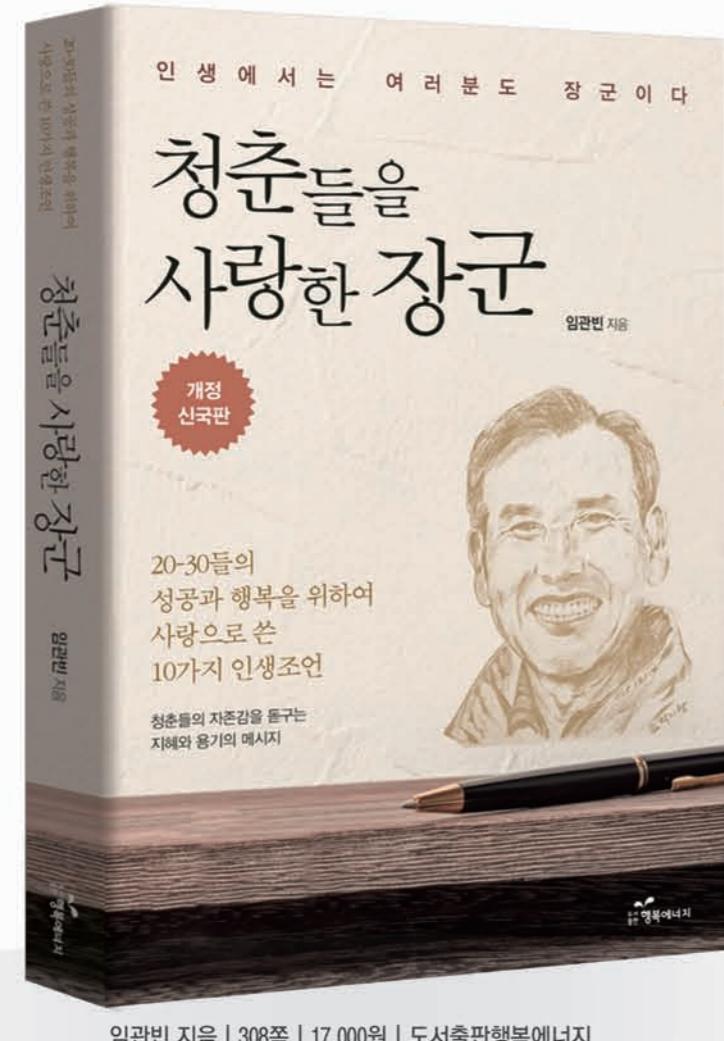
페퍼저축은행은 26일 도로공사전에 이어 30일에는 GS칼텍스와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연패를 끊지 못한다면 장소연 감독으로서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연패 탈출에 도전하는 삼성화재와 페퍼저축은행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된다.

글·사진=연합뉴스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주포 조이 웨더링턴.



##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향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광활한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LAFC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

## 손흥민이 ‘키워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가 2025년을 되돌아보며 ‘최고의 10장면’을 꼽은 가운데 3개 항목을 손흥민이 장식했다.

LAFC는 2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LAFC의 8번째 시즌은 한 시대의 끝(스티븐 체룬돌로 감독 사임)과 또 다른 시대의 시작(손흥민 영입), 새로운 최다 득점자(드니 부양가)의 지속적인 지배력 등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넘겼다. 모든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라며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을 소개했다.

LAFC가 선정한 10장면에는 8월 토트넘(잉글랜드)을 떠나 LAFC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손흥민이 3장면에 이름을 올리며 짧은 기간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음을 증명했다.

손흥민은 LAFC에 입단하고 3개월 만에 12골 4도움의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며 단숨에 MLS 톱스타로 떠올랐다.

LAFC가 꼽은 10장면 가운데 손흥민이 관련된 항목은 손흥민이 이끌었다! ‘부양가와 손흥민의 비상’ ‘손흥민 계약’ 등 3개나 됐다.

LAFC는 ‘손흥민이 이끌었다’ 항목에 대해 “서부콘퍼런스 준결승에서 전반전이 끝났을 때 LAFC는 0-2로 뒤집혔지만 후반 15분 손흥민이 득점에 성공하며 스코어를 2-1로 만들었고, 후반 추가시간 프리킥으로 동점 골까지 뽑아냈다”라며 “비록 LAFC는 승부차기에서 패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LA)FC가 뽑은 ‘2025 최고의 10장면’ 중 3개 항목을 손흥민(오른쪽)이 장식했다.

LAFC 캡처

손흥민의 믿기 어려운 동점 골은 2026년 이후 구단의 클럽의 향방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와 같은 드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흥민 계약 항목에선 “손흥민 영입의 영향력은 곧바로 나타났다. 입단사를 뒤 시카고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그 다음 주에 첫 도움을 기록하더니 그 다음 주에 데뷔골을 쫓았다. 델리스전에서 나온 데뷔골은 이후 ‘MLS 올해의 골’로 뽑혔다”라며 “2025시즌(PO 포함), 손흥민은 단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 68.9분마다 한 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놀라운 효율을 보였다. 이는 MLS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 K리그1 포항, 기성용과 1년 재계약

“감독님의 믿음, 팬들의 사랑 보답하겠습니다.”



기성용은 지난해 부상으로 4월 이후 출전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자 서울과 결별을 선택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박태하 감독이 지휘하는 포항을 새로운 둑지로 삼았다. 지난해 시즌 도중 유니폼을 갈아입은 기성용은 16경기에서 출전해 2도움을 기록했고, 포항은 K리그1 4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포항 구단은 25일 “기성용과 1년 재계약하면서 2026년 시즌에도 함께 한다”라며 “기성용은 공수 양면에서 중심축을 잡아주며 이번 시즌 막판 풀타임 경기를 소화해 건재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2006년 FC서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유럽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다 2020년 서울로 복귀한 기성용은 지난해 7월 포항으로 이직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기성용에 대해 포항 구단은 “정확한 킥과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중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